

Ay Yapım Erdi Işık 인터뷰



Drama Development,
Ay Yapım

Erdi Işık

- FOX TV에서 글로벌 리메이크 선정·제작·편성을 총괄하며 포맷 검수 기준과 현지화 전략을 실무적으로 다뤘은 제작·방송 운영 전문가
- Ay Yapım에서 드라마 개발·대본 평가·규정 준수 검토를 담당하며 서사 구조와 캐릭터 재구성에 전문성을 보유한 개발 매니저

터키 제작 생태계에서 포맷 리메이크는 더 이상 단순한 현지 재제작이 아니라, 방송사 전략 리스크 관리·서사 확장성을 모두 검토하는 고난도 의사결정이다. Erdi Işık는 글로벌 리메이크를 다수 검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포맷이 최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욱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성공적인 리메이크는 단순 복제가 아니라 전략적 변형을 통해 정서적 연결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며, 한국식 16부 완결 구조는 갈등 소진 속도가 빨라 추가 시즌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번 인터뷰는 터키 방송사가 실제로 어떤 포맷을 선택하고 어떤 지점을 리스크로 판단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I Summary

터키 방송 시스템은 회당 130~140분의 장편 러닝타임, 최소 30부 이상의 시즌 지속성, 그리고 해외 판매를 전제로 한 경쟁 구조를 가진다. 이 환경에서 한국식 16부작 완결형 포맷은 중심 갈등이 지나치게 빨리 소진되어 두 번째·세 번째 시즌에서 지속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최근 한국 포맷 가격 상승은 선택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으며, MG(미니멈 개런티) 요구와 회차 보장 불확실성은 계약 단계의 주요 난제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한국 포맷은 강한 캐릭터 구축력과 드라마적 구조 덕분에 잠재력이 높으며, 전략적 변형과 시즌 확장 설계가 전제될 때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주세요 합니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Q. 터키 제작 생태계와 포맷 리메이크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A. 글로벌 TV 및 콘텐츠 시장에서 포맷 리메이크는 더 이상 과거에 성공한 이야기를 단순히 현지 버전으로 다시 제작하는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면서, 포맷 리메이크는 방송사와 채널에게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투자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리스크를 가진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최근 3년간 시청률 기록을 경신한 드라마의 터키 리메이크판은 단 7회 만에 방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 성공이 곧바로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포맷 리메이크는 오리지널 작품과 달리 이미 정해진 서사의 골격, 캐릭터 세계관, 그리고 대체로 유연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평가 과정은 이야기의 '완성도'뿐 아니라, 현지화 가능성, 방송사 전략과의 적합도, 실제 제작 과정에서 구조를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한국 포맷 사용료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키 제작사들이 리메이크할 한국 포맷을 선정할 때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포맷을 도입할 때 원작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방송사의 관점에서 포맷 리메이크가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이 이야기가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가져온 리메이크들이 터키에서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면 <Bahar(닥터 차정숙)>나 <Mahkum(피고인)> 같은 사례에서는, 주요 서사는 유지하되 서브플롯, 캐릭터 관계, 드라마적 배치에서 상당한 변화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원작의 정신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현지 시청자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K-콘텐츠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결정적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 위계, 사회적 수치심, 집단적 도덕 규범, 계층 상승 욕망과 같은 강력한 문화적 코드 위에 구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보편적 감정에 닿을 수 있지만, 터키의 130~140분 분량의 장편 방송 구조에 그대로 이식될 때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강한 포맷이란, 캐릭터의 동기와 갈등을 다시 쓰거나, 공간·사회적 환경을 조정하는 등 각색의 폭을 허용하는 포맷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문화적으로 지나치게 '달린' 이야기 구조는 터키 시청자에게 거리감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맷 평가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이야기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는 16부작, 회당 약 1시간 분량의 완결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그러나 터키 방송 시스템은 회당 약 135분의 긴 러닝타임과 시즌 간 지속성을 요구하며, 해외 판매를 고려할 때 최소 30부 분량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한국 리메이크 포맷들은 대체로 첫 시즌에서는 큰 서사적 문제를 겪지 않지만, 문제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즌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닥터 차정숙>의 터키 리메이크인 <Bahar>는 첫 시즌에 10~15%대라는 매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서는 4~5%로 하락하며 시청자의 약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감소이며, 원작의 주요 이야기가 이미 완결된 구조였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즉, 중심 갈등을 너무 빨리 소진했기 때문에 서사의 지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사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이 이야기가 작동하는가?”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후속 시즌을 위한 대체 서사 엔진, 새로운 갈등 축, 캐릭터의 변화 가능성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다면 해당 포맷은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한국 제작사에게 후속 시즌 서사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Q. K-드라마 포맷이 튀르키예-중동 시장에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점에서는 이야기보다 캐릭터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오늘날 성공적인 포맷 리메이크는 ‘이 캐릭터의 여정이 시청자를 오랫동안 붙잡아 둘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라는 질문으로 평가됩니다. 시청자는 대부분 이야기 자체보다 캐릭터가 겪는 변화에 애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K-콘텐츠는 캐릭터 구축에 강한 전통을 갖고 있지만, 이 캐릭터들은 대개 제한된 분량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장기 편성 체계에서는 캐릭터의 매력과 갈등 구조가 너무 일찍 소진되는 것이 포맷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이 때문에 방송사는 캐릭터가 공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 생성 능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특히 주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포맷이 채널 브랜드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입니다.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라 하더라도,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 요일, 시간대, 타깃 시청층, 채널이 기존에 구축해온 드라마 세계관은 리메이크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터키에는 7개의 주요 지상파 채널이 있으며, 그중 최소 4개 채널은 주중 거의 매일 드라마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쟁 강도가 극도로 높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타임에서 광범위한 대중에게 호소해야 하는 채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니치하거나 톤이 강한 포맷은 국제적 성공과 무관하게 현지에서 반응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자주 보이는 강한 판타지 요소는 터키 시청자층과 잘 맞지 않아 시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터키 TV 시청자는 보다 전통적인 여성 중심 드라마를 선호하며, 채널들도 이러한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맷 리메이크는 단순히 콘텐츠로서만이 아니라, 채널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작비 상승과 낮은 광고 수익 구조 때문에, 터키 제작사와 채널의 주요 수익원은 드라마의 해외 판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동(MENA)과 남미(LATAM) 지역에서 터키 드라마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선호되는 장르는 드라마/텔레노벨라 계열이며, 따라서 한국 포맷 중 터키가 리메이크 대상으로 선택하는 작품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피고인>의 터키판 <Mahkum>은 첫 시즌 국내에서 큰 화제를 모았으나, 어두운 톤과 강한 스릴러 성향 때문에 해외 판매가 제한적이었고 이는 제작사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K-콘텐츠를 터키형 리메이크로 개발할 때는 이러한 시장 요인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야기의 ‘드라마적 요소’를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K-포맷이 진입 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화·구조적 장벽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몇 년간 한국 리메이크와 관련해 떠오른 또 다른 핵심 이슈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포맷이 터키에서 경쟁력을 지닌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국 포맷이 자동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는 구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저렴하니까 한국 포맷을 선택한다"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는 한국 측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도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이 더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터키 드라마의 강력한 글로벌 판매력을 활용해 한국 포맷의 국제적 가치와 인지도를 크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 글로벌화 모델은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드라마를 수출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 제작사와 방송사에게 매우 큰 기회입니다. 한국 원작을 기반으로 한 터키 드라마가 새로운 국가에서 방영될 경우, 한국 포맷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 협업 기회 확대, 추가적인 판매 수익 창출이라는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질적 어려움은 '미니멈 개런티(MG)' 요구입니다. 한국 측은 대체로 MG를 선지급하기를 원하지만, 터키는 시청률 기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도 편성 초기부터 확정된 회차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의 총 방영 회차는 시청률 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선지급 MG 요구와 결합되면서, 터키 제작사에게는 부담이 커지고 계약이 결렬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작품의 경우, 16부 기준으로 한국 측에서 25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러한 조건은 터키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였고, 결국 계약은 무산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가 미국·유럽 작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어서 항상 우선순위였지만, 최근 한국 포맷 가격이 서구권 작품과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한국 리메이크 수가 감소하고 다른 국가의 포맷이 증가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보통 16부작으로 제작되는 점도 또 하나의 장애 요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원작이 16부로 완결되는 이야기는 터키의 장편 드라마 체계에서는 매우 짧게 소진됩니다. 한 회차가 130~140분에 달하는 터키 방송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 포맷의 회차가 26~30부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이는 터키 제작사에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내 제작·편성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차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포맷 판매 경쟁력 역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K-콘텐츠와 관련된 포맷 리메이크는 원작에 대한 '완전한 충실성'을 목표로 하기보다, 전략적이고 통제된 변형을 통해 현지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성공적인 리메이크란 외부에서 들어온 느낌의 작품이 아니라, 현지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글로벌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유지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포맷을 단순한 완제품 패키지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 '서사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방송사는 국제적 성공을 로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결과로 전환할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I K-콘텐츠 산업에 주는 시사점 및 제언

01 장기 시즌 편성에 적합한 서사 설계 필요

- 한국식 16부 완결 구조는 터키의 130~140분 장편 시스템에서 갈등이 빠르게 소진되는 구조적 한계 존재
- 시즌 2~3로 이어지며 시청률이 급감하는 사례처럼 중심 갈등의 조기 소모가 주요 리스크로 작동

제언

초기 단계에서 서사 엔진 확장 계획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장기 시즌 구조 확보

02 캐릭터 변화갈등 생성 능력의 장기 지속성 확보 필요

- 터키 방송사는 이야기보다 "캐릭터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힘"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설정
- 갈등 축이 빨리 소진되면 시청자 이탈이 급격히 발생해 리메이크 성공률 하락

제언

캐릭터의 단계적 변화와 장기 갈등 구조를 사전에 설계해 포맷 경쟁력 강화

03 단순 복제가 아닌 전략적 변형 중심의 현지화 필수

- 원작을 그대로 이식한 '복사-붙여넣기' 방식 리메이크는 현지 정서와 채널 톤 불일치로 실패 가능성 증가
- <Bahar>, <Mahkum>처럼 서브플롯-캐릭터 관계 재배치가 시청자 정서적 연결에 큰 역할 수행

제언

오리지널의 정신을 유지하되 구조적·정서적 변형을 허용하는 포맷 개발 전략

04 채널 브랜드·편성 톤과의 정합성 고려 강화

- 터키 주요 채널은 여성 중심 드라마를 선호하며 톤이 강하거나 판타지 요소가 많은 포맷은 시장성 낮음
- 편성 요일·타겟 시청층·채널의 기존 드라마 세계관이 리메이크 성패에 직접적 영향 발생

제언

초기 기획 단계에서 채널별 편성 철학과 장르 적합성을 반영

05 계약구조·MG 요구포맷 가격 변화에 대한 현실적 대응

- 최근 한국 포맷 가격 상승으로 '가성비 포맷'이라는 기존 장점이 감소하며 선택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짐
- 선지급 MG 요구는 시청률 기반 편성 구조를 가진 터키 제작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계약 실패 사례 증가

제언

회차 보장 부재와 MG 리스크를 고려한 유연한 계약 구조 개발

I 결론

방송사는 이야기보다 캐릭터의 장기 변화 가능성과 갈등 생성 능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으며, 단순 복제보다 전략적 변형을 통한 정서적 재배치를 성공 요인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채널 브랜드·편성 톤과의 정합성이 성패를 좌우하고, 포맷 가격 상승과 선지급 MG 요구는 계약 과정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해 서사 확장성, 캐릭터 지속성, 계약 유연성을 중심으로 진입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